

자모님

: 그 전 한가지 여쭙어보고싶은 점이 있는데 ,... 혹 쿠루미는 예전부터 메리골드의 행동이나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사람을 바꾸거나 돕고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쿠루미가 느끼기에 메리골드의 첫인상은 차갑고 비정한 사람 인데, 그 와중에도 메리골드 스스로의 계획이나 이상과 얽매어 여유가 없어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메리골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고립된 사람처럼도 보였다고 할까요. 관계의 초반부터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을 가졌다 싶진 않아요 그렇기때문에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지금처럼 얽혀들지만요.

우냐

:..... 그.
.....그초반챗터에서
.....메리골드가 쿠루미를 죽였(,,)었어요

자모님

: 아

메리골드가 쿠루미를 죽인 이유는, 별다른 이유 없는 살해보다도 이 상대가 거슬리거나 불쾌해서인가요? 메리골드가 보기에, 쿠루미는 어딘지 감정을 자극하는 부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 이걸 타인에 대한 악감정이라기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드문 메리골드가 보기에 지나치게 약하고, 부드럽고, 동시에 자신이 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척점이라 더 거슬려했다는 느낌이 있어 여쭙어보아요 ...

우냐

:... ..
타로한테다들키는중이네 잠시만요...

쿠루미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거짓된 허상의 존재 언니를 만들어내서 그 언니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리골드는 거짓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계를 부정해왔고요...
그런데 쿠루미는 자기 언니에 대한 허상을 지우지 못하고 초반챗터에서 마스코트한테 ...상해를 입히려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때 딱... 메리골드는 쿠루미의 환상을 다 알고있었는데
거짓된 것에 매달려서 본인까지 버리는 것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했고 여러모로...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해도 안되고...

자모님

: 어떤 의미에선 자신과 너무 닮은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감히 같다고 이야기하기엔 스스로도 쿠루미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고, 절대 이해하거나 납득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까요. 뿌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둘 다 너무 다른 형태의 타인이기 때문에 메리골드는

쿠루미에게 충격을 주고싶어했노란 인상이 있고, 그건 결국 쿠루미를 뒤흔들고싶어했다는 의미예요.

어떤 애정이나 애착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불쾌함이나 분노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건 관계의 초반이고, 이후에는 기어이 메리골드가 쿠루미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는 인상이예요. 이건 쿠루미의 삶 자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쿠루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미지죠 애당초 메리골드의 날카로움은 자기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데에서 시작한거니까요 그 전 상태는 **누군갈 담기에 너무 좁고 파편으로 바스러져, 가까이 오는 것들을 할퀴는 것밖엔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쿠루미에게도 지금 현재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 행동이 결코 쉬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애당초 쿠루미는, 외부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갈등이 심하고, 자기자신의 약한 면, 마음에 차지 않는것, 싫은 점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그것에 패배하고 다시 상처입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극단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말해주셨지요 이건 기반이 불안정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쿠루미의 경우 끊임없는 자기부정으로 애당초 자기가 설 기반을 깔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건 외부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며,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감정처럼 '밖에서' 오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감정같은 것들에 그닥 확신이 없어요.

냐님

: 진짜...스스로갈등이 심해요 부조리한상황에 익숙해지기 싫어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하고...

자모님

: 이 사람의 이타성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것도 아니죠. **쿠루미는 메리골드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돕고싶었고, 기어이 자신이 자신의 일부, 혹은 욕심낼 수 있던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요. 그 '포기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후회로 남고, 지금도 관계에 , 정확히는 쿠루미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있지만 적어도 메리골드에게는 이 관계를 충분히 안정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보니 지금 쿠루미의 상태가 조금 묘한데 ,... 혹시 지금도 쿠루미는 억누르고있는 욕심이 있나요? 무언가 자신이 말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들인 것'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민하고 있어요. 쿠루미가 지금 메리골드를 구하고 자신이 찾은 현실을 싫어하거나 극단적으로 후회한다는 뜻은 아니예요. 다만 자신이 원하는 '가장 나은 세상', 자신이 바라는 모습에 비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도 나약해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깔아먹고있다면 비슷하겠네요. 쿠루미는 자신이 메리골드에게, 또 이 관계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감정이라 이관계에 해가 된다고보단, 쿠루미가 혼자 깊은 고민에 침잠했던 표현이 어울릴거예요.

냐님

:방금주신거보고생각난건데 메골이 참회를안해서 . . .

후회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러갈때마다 이인간!! 하는건 있다네요 πππππππππ

자모님

: 그에 비해, 메리골드는 생각보다도 자신이 맞이한 이 결말과 자신을 구한 쿠루미의 존재같은 것들에 상당히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자신에게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들을 '만족'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죠. 물론 이것 자체가, 그리고 자신이 쿠루미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유쾌한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메리골드의 욕심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메리골드는 지금 쿠루미의 고민이 무엇인지까진 몰라도 쿠루미가 아무리 성장했다 한들 완벽하게 스스로 설수있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자신이 잡고 세워주고싶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정확히는 자신이 이끄는대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곁에 남겨두거나 사고방식을 물들이고싶어한단 이야기죠. 이해자를 원한다기보다, 쿠루미의 불안에 자신이 지지대가 되어주고싶다는 느낌인데 ..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참 다정한 손길이 됐겠지만 메리골드의 사고방식과 성향상 그리 온건해보이는 방식은 아녜요.

하지만 메리골드는 그것이 자기 욕심이라는 자각정돈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고민하고있어요 정말 행동 자체로 옮기기 전 브레이크는 있다고 할까요 (..) 이렇다보니, 메리골드는 앞으로 쿠루미로 하여금 더 많이 바뀔거고, 특히 감정적인 면으로 유순해질텐데... 재미있는 부분은 쿠루미도 앞으로 충분히 변할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쿠루미는 메리골드로 인해 '단련되는' 부분이 있을거고, 그건 메리골드가 원하는만큼 이 사람쪽으로 기우는 방식이라기보다 쿠루미가 자기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형태다 보니 .. 영향이 없지야 않겠지만, 생각하는것만큼 극단적인 (!) 결과는 없겠네요.

냐님

: 근데.... 아무리 성장했다한들 완벽하게 스스로설수있는 단단한사람이라고생각안한다는게 너무 말이돼서 머리를쳤어요

자모님

: 혹 모호하거나 이외의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우냐

: ㅋㅋ아아아

.....뭐지 그....저 저희 애프터에서 쿠루미가 구해온덕에 메리골드가 생존 이후 대역죄인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사형,,그 뒤에서는 생존해서 세계를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전세계적 기밀같은 존재라 그냥,,그,,...마냥 자유롭게돌아다닐수잇는 존재는 아닌데 어차피 남은 수명이 얼마되지않아서 10년정도잇으면..

죽을거예요 그쵸를..며칠전에풀었는데,,

죽었을때.....쿠루미가 마지막으로 곁에남아주거든요 근데 메리골드는 자신이 악인이라 인식하고잇는만큼 죽을때도 혼자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때문에 그에대한 허용범위가 왜쿠루미에겐 열렸을까,,에대한것이랑 쿠루미도 그,,메리골드가 죽은 이후에,,

자기도모르게?눈물한방울정도 투한다그랬나 근데 자기가 왜 울지 하는게잇는데,,
,,,그에대한 감정이궁금한데 저 이거 물어보면박살인가요죄송해요나님

나님

: ㅋ

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뇨박살아니에어

(추가금)

자모님

: 메리골드는 본래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큼 자기자신에게도 용서가 없는 것이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의 책임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그 10년후 죽음을 앞둔 메리골드는 쿠루미로 하여금 자기자신이 실재하고 의미있는 무언가라고 충분히 확인받은 상태죠. 그 자신이 거짓된 존재나 무의미한 허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욕망하고 싶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끌어갔던 메리골드지만, 그 부분의 '욕망'을 자신과 닮은 쿠루미가 인정해주었다는점에서 메리골드 안에 선이 지워졌다고표현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이걸 쿠루미의 기억에 남고싶다는 메리골드의 이기심이기도 하지만, 쿠루미가 '마땅히 지켜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쿠루미의 경우, 메리골드에 대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정확히는 메리골드가 거부할 것을 알기때문에 숨긴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메리골드에 대한 걱정이나, 그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친구나 연인같은 상대에게 출범한 애정과 관련되어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메리골드가 사망할 시점에 닿아 결국 쿠루미가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결말에 이르렀고, 쿠루미는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나 가능성을 알지못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마침표로, '수용'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노란 이미지네요

우냐

: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뭘까요,,,,???????

쿠루미가 친구가 워낙많다보니 그것과 같은 감정일까,,,아님좀더 복잡하게엮힌것일까 <ㅇ>????????나쿠루미너때메미치겟 ㄱ다...

자모님

: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상황, 메리골드의 죽음과 그 결말로 자신이 메리골드와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 한 존재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일과 같이 .. 메리골드와 관련되어

쿠루미가 이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하는 것들에 하나씩 현실감을 가지고 완전히 납득한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사람의 죽음은 사건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뒤가 마무리니까요.

그리고 감정의 경우 단순한 우정이나 친애보다 얽힌 감정이 복잡하다보니 이걸 한 두가지 분류로 말하기 어렵네요

다른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XD

우나

: 쿠루미진짜완전 성장형캐릭터구 난진짜미치겠네.....아뭉지 하..하나만 더여쭙봐도될까요 아안되나 님보고 자모님보고바닥보고...

님

: 혈먼가요

우나

: 그...메리골드가 죽기전까지 남은 10년간..둘 관계의.. 미래같은것,,,,????

메골은 자기가 어디까지버틸수있을지 언제죽을지 알고있을것같은데 (몸상태가 안좋은 것까지포함하여 수명을 계산하고잇단 느낌일까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는..않을것같아서 차차죽음을 준비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싶어서요 중얼중얼,,,

자모님

: 그동안 메리골드는 쿠루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갖게될지, 쿠루미는 메리골드를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 알고싶으신 것 맞지요? (추가금)

메리골드의 변화가 생각보다 크네요. 메리골드에게 쿠루미의 존재는 과거의 불쾌감에서, 현재의 안정을 넘어 미래에는 일종의 희망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메리골드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게끔 하는 매개가 쿠루미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겠네요. 현재 메리골드가 쿠루미에게 가진 욕심은 상당히 이기적인 방식이었지만, 이 10년간 메리골드는 그런 방식의 충동을 억눌러가며 **쿠루미가 '원한' 세상을 '함께' 보아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완전히 정해놓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될거예요. 메리골드는 단편적으로 죽어있고, 또 단편적으로 살아있는 인간같아요.** 쿠루미와 함께할 때만 일시적으로 생기가 돈다는 말이죠. , 인간적으로, 타인과 어울려 느낄 수 있는 애정이나 교류가 가능한 상대가 쿠루미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이러니 죽기 직전에 쿠루미에게 터놓는 영역이 더 넓을 수 밖에 없네요. 이걸 단순히 친구를 넘어 그냥 유일한 존재니까요.

(이때 초토화됨)

자모님

: 쿠루미의 경우에는, 점점 더 안정되고, 성숙한 인간이 될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고도 말할 수있겠고, 더이상 메리골드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일 없이 메리골드를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성장한단 이야기죠. 여전히 메리골드에게 원하는

결단이 있지만, 어느 한쪽으론 쿠루미 또한 메리골드를 자신과 닮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친구라기보다 오히려 견고한 가족, 혹은 동반자의 울타리에 가깝기도 하죠. 메리골드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그 행동을 타이르거나 여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분위기나 감정만 따지고 보자면 친구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거란 이야기예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나

: ...

,,,근데쿠루미는 왜..인정을..어..뭐라하지 안할까요??,,,, 지,,금 본 타로 해석 내에서
알수있는...질문의범주인....건가....

자모님

: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의 감정이라는 느낌이에요. 이걸 메리골드가
해온 일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건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단 인상도
있거든요. :>

...끝,...

...